



[보도자료]

## 항공사들 각국 정부에 국제슬롯가이드라인 준수 촉구

-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결의안 채택 -

서울(2019 년 6 월 2 일) - 국제항공운송협회 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; 이하 IATA)는 제 75 차 IATA 연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슬롯(Slot)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. IATA 는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슬롯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각국 정부가 공항수용능력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.

현재 전세계적으로 200 개 이상의 공항의 수용능력이 항공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사전에 슬롯조정을 받아야만 운항이 가능한 3 종(Level-3) 공항으로 분류되어 있다. 신규 건설되는 공항의 수가 늘어나는 항공운항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3 종 공항의 수는 향후 수십년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. 따라서 제한된 공항의 가용수용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.

IATA 는 제 75 차 연차총회에서 국제슬롯가이드라인(WSG: Worldwide Slot Guidelines)이 공항슬롯 배분 및 관리에 관한 정책, 원칙, 절차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결의안을 통해 ▲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글로벌 연결성 증진 ▲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리한 항공스케줄 제공 ▲독립된 슬롯조정인을 통해 투명하고 비(非)차별적인 슬롯 배분 ▲주기적 검토를 통한 공항수용능력 최대화 등의 목표를 세웠다.

알렉산드르 드 주니악(Alexandre de Juniac) IATA 사무총장 겸 CEO 는 “국제슬롯가이드라인이 있었기에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항의 수용능력을 성공적으로 배정할 수 있었다. 승객은 물론 사업자와 항공사 모두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스케줄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, 선택의 폭 또한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다. 슬롯이 포화상태인 전세계 공항 중 절반 이상이 유럽에 모여 있다.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 년간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침투가 40%까지 상승했다”고 말했다.

그러나 IATA 는 국제슬롯가이드라인 때문에 공항수용능력 확대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.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“국제적으로 일관된 슬롯 체계는 우리가 현재 가진 인프라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이지 활주로나 터미널 등 부족한 실물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니다.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연결성 위기를 피하려면 각국 정부들이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한다”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.

###



## 미디어 문의

### **[IATA]**

Albert Tjoeng / Assistant Director, Corporate Communication AP / [tjoenga@iata.org](mailto:tjoenga@iata.org)

### **[국내 홍보 대행사 케첨] [SKR-IATA@ketchum.com](mailto:SKR-IATA@ketchum.com)**

신혁수 사원 / David Shin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03

김승윤 사원 / June Kim, Account Executive / 02-559-9627

김성이 부장 / Sunny Kim, Account Director / 02-559-9621